



이른 추석을 앞두고 나주지역 배 농가들이 고품질 나주배 생산을 위해 수확 전 과원 내 수시 예찰과 적기 방제, 병해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나주시제공>

이른 추석 대비 고품질 배 생산 총력

나주시, 미숙·저품질위과 유통 자제 강력 요청 과수 현장기술 지원 수확 전 과원관리 당부

나주시가 이른 추석을 앞두고 고품질 나주배 생산을 위한 농가 실천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해 통틀어 최대 소비 대목인 추석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나주배 명성에 악영향을 주는 미숙과, 저품질위과 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 올리는 배꽃 개화기 이후 기

상 여건이 대체적으로 양호해 배 생육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른 추석으로 출하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관행적인 재배 방식으로는 저당도, 소과 등 미숙과와 저품질위과 생산, 유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추석 고품질 나주배 생산을 위한 품종 별 숙기 판정 조사를 실시하고 적기 수확과 수확 요령 등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서는 한편, 배 농가에 수확 전 세심한 과원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농가 실천사항으로 과실 비대, 가지 유인, 후기 적과, 시비·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등을 꼽았다.
7월 중순에서 8월 초 진행되는 2차 과실비대 시기 대과·고당도 과실 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가지(신초)의 자람세가 80% 이상 멈춰야 유리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가지의 2차 생장이 있을 경우 P-K제를 엽면에 살포해 가지 생육을 억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과총엽에 햇볕이 잘 들도

록 가지를 유인하거나 옷자란가지(도장지) 밀도를 조절해야 하며 8월 중 태풍으로 인한 강풍에 가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과실이 달린 가지를 덕에 고정시켜 낙과를 방지해야 한다.
또 과실 2차 비대기간 중 주지 끝부분이나 나무 아래 햇볕이 들지 않는 부분의 작은 과실을 따내는 충실한 과실들이 비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시비 관리는 질소질 비료 사용을 금지하고 황산가리(1포/300평)를 사용하며 착색 증진을 위한 과도한 호르몬제 사용은 자제가 필요하다.
과원 수분 관리의 경우 열과와 엽소피

해 방지를 위해 토양 내 적정 수분 함량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7-10일 간 비가 안 내릴 경우 30mm를 관수하고 최저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지속될 시 해질 무렵 1-2시간 관수를 실시해 과원 내 온도를 낮춰야 한다.
아울러 과원 내 수시 예찰과 적기 방제를 통해 검무늬병, 응애, 주경배나무이, 가루깍지벌레, 복숭아순나방 등 병해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미숙·저품질위과 출하는 나주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물론 농가 소득과 명성을 떨어뜨린다"며 "수확을 앞두고 철저한 수확, 토양, 병해충 관리를 통해 고품질 나주배가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농가 실천사항 준수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정종환기자

목포시, 계약정보 비공개·누락 '빈축'

공사 분할계약금지 규정 위반 논란도

목포시가 사업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계약정보시스템'에 올리고 있으나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계약정보시스템에 일부 내용 등이 비공개로 운영되거나 계약사항을 일부 누락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부 계약의 경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지난 7월부터 8월 8일까지 공사 66건, 물품 26건, 용역 28건, 관급 39건 등 총 16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2천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투명한 행정을 강조하며 계약

사항 투명 공개를 위해 실시 중인 계약정보시스템에 일부 내용이 비공개로 운영되거나 일부 계약사항은 누락해 빈축을 사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달 26일 계약한 민선 8기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은 하당권과 원도심권 등 2건이었는데 계약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하당권 사업만 공개돼 있고 원도심권 계약정보는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취재 이후 당초 계약일보다 8일이 지나서야 관련 계약 내용이 계약시스템에 올라왔고 같은 날, 당초 없었던 또 다른 4건의 계약도 뒤늦게 추가됐다.
이 때문에 민선 8기 시청 목포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 2건 중 원도심권 계약 정보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 결과,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은 2건 모두 각각 계약금 1천798만2천원 같은 날 계약을 체결했다.
동일 사례로 지난 7월 22일 계약한 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도 심도심권 1천89만원, 원도심 1천188만원에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계약정보시스템에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업무 추진 사항에 따라 등록하기 때문에 동일 계약이라고 해도 등록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다"며 "분할 발주 논란이 일고 있는 계약건도 현상이 다르고 업무 추진 긴급성 등을 고려해 발주 부서에서 나눠 품의를 하는 경우로 분할 발주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강진군이 버려지는 파프리카 부산물을 한우 농가의 TMR 사료 원료로 활용해 사료비 절감과 축산물 생산 안정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연구팀장이 축산농가를 찾아 파프리카 나무 철거 후 부산물을 확인하고 있다. <강진군제공>

해남군, 올해 말 교육재단 설립

장학사업기금 500억 조성 박차

해남군이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체계적·전문적 군민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 지역사랑인재 육성 사업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13대 전략 핵심과제로 교육재단 설립 운영,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등 세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 교육재단은 해남군이 출연해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올해 말 설립할 예정이다. '지역민과 함께 키우는 성장하는 교육도시 해남' 비전으로 아동·청소년·군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장학사업 확대, 시대적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육사업 지원, 민·관·학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 구축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교육재단의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 사업비·운영비 외에 매년 30억원 씩 출연해 2032년에는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민·향우 참여 장학사업기금 조성사업도 확대해 기금 적립에 힘을 보태 예정이다.
해남군은 차질없이 교육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임원 공모, 발기인 및 창립총회 등 행정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군의회 동의를 거쳐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남=박필용기자

신안 임자 '대파테라'

전남 빵지순례 선정

신안 임자도 '대파테라'가 전남도 선정 '빵지순례'에 이름을 올렸다.
대파테라는 임자 대파를 넣어 은은한 파향이 나는 부드러운 야채 카스테라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할머니일' (할머니+밀레니얼) 디저트로 제격이다.
박종은 임자농협 하나로베이커리 대표는 "대파테라가 전남 빵지순례에 선정돼 기쁘다"며 "대파테라 뿐만 아니라 신안 특산물인 임자 대파를 이용한 다양한 빵을 개발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대파테라를 개발, 특허 출원을 완료했고 관내 제빵업체에 기술이전과 공동포장재를 보급했다.
/신안=양훈기자

강진군, 파프리카 부산물 발효사료 활용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비 절감 기술 시범 추진

강진군이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인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비 비용 절감 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버려지는 파프리카 부산물을 한우 농가의 TMR 사료 원료로 활용해 사료비 절감과 축산물 생산 안정화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세계 곡물 가격 상승으로 국내 사료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축산 농가의 고민이 깊은 만큼, 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나섰다.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인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비 절감 기술 시범사업'을 진행해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와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비 절감 기술 시범사업'은 TMR 자가 배합을 해 온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파프리카 생산 단지의 슈아년 과실 등 신선한 상태의 부산물을 TMR 사료 원료로 활용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원료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파프리카 부산물의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절감되고 가축분뇨를 다시 토양으로 환원하는 경축 순환농업이 이뤄지면서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발효 유용 미생물 활

용과 파프리카 배합 비용 등 가축 사양 관리 매뉴얼을 개발한다. 강진의 파프리카 부산물을 수거해 TMR 배합사료 중 파프리카 함량별 영양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배합비로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물 생산 현장 컨설팅과 기존 TMR 배합비 분석 등 현장에서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영아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은 "국내 배합사료에 사용되는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실정에서 양질의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TMR 사료 활용 등과 같은 한우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축산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